

한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근 설문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경험적 증거*

김 성 연 | 서울대학교

김 형 국 | 중앙대학교

이 상 신 | 서울대학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정책 투표(issue voting)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필수적인 기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권자들의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issue stance)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투영 효과(projection effects), 추론 효과(inference-making),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 지금까지 제시된 대표적인 설명들이 한국 유권자들에게도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2012년 2월에 실시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호, 유권자들 자신의 정책 입장, 그리고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기존의 지식 등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독립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투표와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주제어: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후보자 정책, 유권자 인식

*이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기반연구(SSK)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NRF-2010-330-B00035).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 특히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문의나 관련 자료의 요청은 제 1저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email: syouinkim@gmail.com).

I. 들어가며

정당에 대한 지지(partisanship)와 정책에 대한 선호는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선거 결과의 결정 요인들이다. 캠벨 외(Campbell et al. 1960) 등의 고전적 연구들은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다운스(Downs 1957) 등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을 둔 초기의 연구들은 정책 이슈와 이념을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후 수많은 연구들과 논쟁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 일체감과 정책 이슈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왔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연구들은 정책 이슈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앤소헤비어 외(Ansolabehere et al. 2008)의 연구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가 후보자 선택에 독립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보여주었다. 또한, 스나이더와 텅(Snyder and Ting 2002; 2003) 그리고 운과 포우프(Woon and Pope 2008)에 따르면 의회 선거와 같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선거(low information elections)에서는 정당 일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대통령 선거와 같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선거(high information elections)에서는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입장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이톤(Highton 2010)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이슈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당들 간의 입장 차이보다 후보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은 정책 이슈에 대한 선호가 정당 일체감과 더불어 선거 결과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정당 일체감과 정책 이슈에 대한 선호의 영향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iller and Shanks 1996; Adams et al. 2005; Lewis-Beck et al. 2008).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정당 지지와 지역 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당 지지와 지역 구도 외에도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이

슈 등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갑윤·이현우 2008; 이내영 2009; 황아란 2000; 강원택 2007). 특히,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이슈, 특히 경제 이슈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 수의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들에 대해 기대를 가졌고, 이러한 기대가 이명박 후보의 선거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이재철 2008).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정책 이슈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정책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책 투표(issue voting)의 기본 전제는 유권자들이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선거 행태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정책 이슈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대부분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정보는 대개 파편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정책 사안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경우에도 종종 득표와 선거 승리를 위해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Shepsle 1976; Page 1978). 뿐만 아니라 대중언론매체의 선거 보도는 후보자들의 정책보다는 주로 경마식 보도와 후보자들의 개인적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Patterson 1980). 게다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명확한 정책 입장을 알기위해 애써 노력할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파편적이고, 모호하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선거일에 즈음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내리며(Conover and Feldman 1989), 이러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훌륭한 예측 변수가 된다(Aldrich and McKelvy 1977). 그렇다면 이러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즉,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후보자들의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판단하는가? 이것은 정책 투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 작동 일반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만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완전히 주관적으로 혹은 무작위로(randomly)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여,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

졌고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었다(Miller et al. 1976; Kinder 1978; Conover and Feldman 1989; Krosnick 1988).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판단하고 인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투영 효과(projection effects), 추론 효과(inference-making), 그리고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 지금까지 제시된 대표적인 가설들이 한국 유권자들의 후보자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지 살펴 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을 소개하며,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갖는 주요 함의에 대해 논한다.

II. 투영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 추론 효과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 접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지극히 파편적이고, 불완전하며,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판단하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대표적인 설명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에 기초하여 추측(guess)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판단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 중 대다수는 투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Brody and Page 1972; Miller et al. 1976; Kinder 1978; Markus 1982; Bartels 1988). 이 투영 효과 가설은 이론적으로 심리학의 고전적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혹은 인지적 균형(cognitive balance)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에 대한 조화로운 혹은 일관된(consistent) 인지 상태를 선호하며, 인지적인 부조화 상태에 처했을 경우에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한다(Festinger 1957; Heider 1958). 그러나 자신의 중심성 혹은 중요성(centrality of self)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인지 대상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 결국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입장이나 태

도를 바꾸기 보다는 인지 대상에 대한 판단을 바꿈으로써 이러한 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판단할 때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싫어하는 정치인이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불편해하며 이러한 인지적 부조화 상태를 회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는 자신과 비슷한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자는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정책 입장을 투영하고(project), 싫어하는 후보자에게는 그 반대의 입장을 투영할 것이다.

이와 달리, 크로스닉(Krosnick 1985)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일반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다수의 심리학 분야 연구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Sherman et al. 1984).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선호와 상관없이 후보자들이 일반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해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중립적인, 즉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여겨진다(Krosnick 1988).

투영 효과와 허구적 일치성 효과가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책입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 자신의 입장이 갖는 역할에 주목하였다면, 추론 효과 가설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이념집단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지식 혹은 고정 관념(stereotype)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코노보와 펠드만(Conover and Feldman 1989)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고정 관념을 이용하여 추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판단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특히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혹은 이념 성향(진보 혹은 보수)의 정책 입장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개별 후보자들에 비해 정당이나 이념 집단의 정책 성향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훨씬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물을 인지할 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에 기초해서 그룹화(categorization)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별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통의 그룹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보를 단순화하고 정보 처리를 위한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화에 기초한 사고는 개별 대상의 특성을 추론할 때에도 나타난다. 즉, 어떤 대상이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대상이 그 그룹의 공통성인 특성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판단할 때, 그들이 소속된 정당이나 이념적 그룹의 공통적인 정책 입장에 의거해서 추론할 가능성이 높다. 즉, 만일 새누리당이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도 일반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만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대체로 대북 유화책 보다 대북 강경책을 선호한다고 믿는다면,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후보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설명들과 달리 일련의 연구들은 캠페인 정보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Miller and MacKuen 1979; Drew and Weaver 1991; Alvarez 1998; Holbrook 1999; Brady, Johnston, and Slides 2006). 이 연구들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비록 제한이 있지만 종종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후보자들과 그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 배운다(Alvarez 1998). 경험적으로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후보자간 TV 토론 시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Drew and Weaver 1991; Holbrook 199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캠페인 효과'(campaign effects)에 대한 연구의 부산물이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이 연구들은 캠페인 정보가 유권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단순히 후보자간 TV 토론과 같은 선거 이벤트들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했다.

보다 최근에, 김성연(2011)은 투영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 등과 더불어 캠페인 정보가 유권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국에서 실시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캠페인 정보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캠페인 정보를 접했을 때 그 핵심적인 함의(implications)가 연관 학습(association learning, Anderson et al. 2004)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되며, 이렇게 저장된 함의는 이후 점화 효과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유권자들이 접하는 캠페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지만 그 핵심적인 함의는 여전히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는 투영 효과와 허구적 일치성 효과뿐만 아니라 캠페인 정보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권자들의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은 캠페인 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요인과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자신의 정책 입장 등 주관적인 요인 등 두 가지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III. 데이터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12년 2월 말에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설문 참여율은 전화조사에 비해 매우 높은 약 80%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들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49.9%와 50.6%였고, 연령대는 20대 18.3%, 30대 20.4%, 40대 21.6%, 50대 19.2%, 60대 이상 20.5%였다. 스스로 진보적, 중도,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각각 30%, 42.4%, 그리고 28.6%였고,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31.6%, 민주통합당 27.9%, 통합진보당 3.8%, 기타 정당 1.2%, 무당파 27%였다.

조사 내용에는 응답자들의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출신 지역, 정당 일체감, 이념적 성향 등 표준적인 변인들은 물론,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씨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와 이들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대북 정책, 환경, 그리고 세금 등 네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 응답자들 자신의 입장,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씨의 입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책 사안들 중 일자리 정책과 환경 정책은 미국 선거 연구(NES: National Election Study) 등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매 설문 조사 때마다 포함되어온 항목이며, 대북 정책과 세금 정책

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포함되었다.

이 설문 조사는 투영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 그리고 추론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 가지 문제는 이 데이터로는 캠페인 정보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접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서는 어려우며,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캠페인 정보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 연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투영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 그리고 추론 효과 가설들은 다음의 통계 모형(식 1)을 예측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인식}_{ij} = & \beta_0 + \beta_1 \text{ 정당 정책 입장}_i + \beta_2 \text{ 응답자 입장}_i + \beta_3 \text{ 후보자 선호}_j \\ & + \beta_4 (\text{응답자 입장}_i \times \text{후보자 선호}_j) + \beta_5 \text{ 정당 지지} + \beta_6 \text{ 이념 성향} \\ & + \beta_7 \text{ 정치 지식} + \beta_8 \text{ 나이} + \beta_9 \text{ 교육} + \beta_{10} \text{ 소득} + \text{지역 등 기타변수} + \varepsilon_{ij} \end{aligned} \quad \text{식 (1)}$$

식 (1)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판단이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응답자들 자신의 정책 입장, 후보자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 등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종속 변수인 인식_{ij} 은 후보자 j 가 정책 i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perception)이고, 독립 변수인 정당 입장_i 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정책 i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며, 응답자 입장_i 은 정책 i 에 대한 응답자들 자신의 입장이며, 후보자 선호_j 은 후보자 j 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이다. 정당 지지 는 응답자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이념 성향 은 이들의 진보 혹은 보수적 이념 성향, 지역 은 응답자들의 출생 지역을 나타낸다. 인식_{ij} , 정당 입장_{ij} , 그리고 응답자 입장_i 은 모두 동일한 1-7점(진보-보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되었으며, 후보자 선호_j 은 표준적인 0-100 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되었으나 -5-5 사이의 값을 갖도록 조정되었다. 정당 지지는 응답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지지할 의사가 있는 정당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 민주당 지지, 진보 정당 지지, 그리고 무당파로 나누었으며¹⁾ 이념 성향은 0-10 점(진보-보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되었다. 이 논문의 첨부 1은 네 가지 정책사안에 대

1)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합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분류하였으며,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는 제외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이러한 코딩방식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한 응답자 자신의 입장과 각 후보 및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내용과 척도를, 첨부 2는 후보자 선호를 묻는 설문 내용과 척도를, 그리고 첨부 3은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을 묻는 설문 내용과 척도를 보여준다. 출신 지역은 범주 변수(categorical variable)로서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나머지 변수들도 모두 표준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²⁾

식 (1)에서 계수 β_1 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이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즉 추론 효과를 포착한다. 만일 응답자들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근거해서 후보자의 정책 입장을 판단했다면 계수 β_1 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beta_1 > 0$). 즉,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과 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β_2 는 허구적 일치성 효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β_2 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긍정적이지도 그리고 부정적이지도 않을 때(후보자 선호_j = 0) 설문 응답자들 자신의 입장이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허구적 일치성 효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후보자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일반화하며 따라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이 중립적일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된다(Krosnick 1985; Conover and Feldman 1989; Kenny 1993). 만일 이러한 허구적 일치성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면 β_2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beta_2 > 0$).³⁾

교차항(응답자 입장_i × 후보자 선호_j)의 계수 β_4 는 투영 효과를 포착한다. 투영 효과는 실험 응답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후보자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싫어하는 후보자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들 자신의 정책 입장이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에 높아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투영 효과가 유효하다면, β_4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beta_4 > 0$). 마지막으로, 이 모형은 종속 변수가 순위 변수(ordered variable)이기 때문에 서열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예측되었다.

2) 기타 변수로는 응답자 성별 및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타 변수들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3) 물론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중립이 아닐 때에도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씨의 정책입장에 대한 설문참여자 응답율(%)

	일자리	환경	북한	세금
박근혜	82.3	80.8	82.6	82.2
문재인	79.5	77.4	80.0	77.1
안철수	75.7	74.2	76.3	76.0

〈표 2〉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씨의 네 가지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일자리		환경		세금		북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박근혜	4.11	1.91	4.91	1.75	4.17	1.93	4.92	1.73
문재인	4.13	2	4.66	1.94	3.54	2.16	3.91	2.1
안철수	4.02	1.99	4.65	1.96	3.45	2.11	4.34	2.07

주: 응답자들의 인식은 1-7 척도(진보-보수)로 측정되었다.

IV. 분석 결과

〈표 1〉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씨가 네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문조사 참여자들 중 대다수(평균 약 80%)가 질문에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박근혜의 정책 입장에 대한 질문들에서 문재인이나 안철수에 대한 질문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는 세 후보들의 네 가지 정책 입장에 대한 응답자 인식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 준다. 응답자들은 박근혜 씨의 경우 네 가지 정책 사안 모두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반면에 문재인 씨는 일자리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고 세금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안철수 씨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그리고 나머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3〉은 식 (1)을 각 후보자 및 정책 별로 순위 로지스틱(ordered logit estimation)을 통해 예측한 결과이다. 이 분석 결과는 추론 효과, 투영 효과, 그리고 허구적 일치성 효과 모두가 응답자들의 판단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경우 추론 효과를 반영하는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표 3〉 후보자 및 정책 사안별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

1) 박근혜

	일자리		환경		세금		북한	
	계수	t	계수	t	계수	t	계수	t
정당 정책입장	1.03	16.49	1.32	17.75	1.20	17.13	1.25	19.79
후보자 선호	-0.36	-5.70	-0.39	-4.38	-0.45	-5.62	-0.26	4.64
자기 정책입장	0.10	2.05	0.15	3.09	0.13	2.55	0.14	2.26
후보자 선호 × 자기 정책입장	0.08	4.50	0.08	4.50	0.08	4.49	0.06	2.48
새누리당 지지	-0.08	-0.42	-0.31	-1.65	0.19	1.08	0.22	1.19
민주당 지지	-0.29	-1.62	-0.23	-1.26	-0.12	-0.69	0.15	0.85
진보정당 지지	0.45	1.26	0.05	0.14	0.12	0.35	-0.13	-0.38
이념 성향	0.05	1.39	0.06	1.60	0.01	0.36	-0.09	-2.42
정치 지식	-0.05	-0.55	-0.02	-0.15	0.01	0.13	0.00	0.01
나이	-0.17	-2.66	-0.04	-0.58	0.07	1.22	-0.08	-1.40
교육	-0.08	-1.61	0.01	0.23	0.04	0.86	0.00	0.02
수입	0.04	0.42	-0.21	-2.20	0.05	0.58	0.03	0.32
기타 통제변수								
N	810		798		820		838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two-tailed p-value < 0.05)는 굵은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수로는 출신 지역, 성별 등이 포함되었다.

대한 인식의 영향은 예상했던 대로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후보자와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분석에서 안철수 씨는 무소속이므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중립적일 때 허구적 일치성 효과를 나타내는 응답자 정책 입장의 계수 또한 세 후보 모두 모든 정책 사안에 걸쳐 예상했던 대로 양수 값을 갖고 있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물론,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응답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중립적일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투영 효과를 반영하는 응답자 자신의 정책 입장과 후보자 선호간 교차항(interaction term)의 계수도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경우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 그리고 안철수 씨의 경우 일자리와 세금 정책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양수 값을 갖고 있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응답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는

〈표 3〉 계속

2) 문재인

	일자리		환경		세금		북한	
	계수	t	계수	t	계수	t	계수	t
정당 정책입장	1.12	15.33	1.25	15.38	1.27	17.28	1.26	17.41
후보자 선호	-0.30	-4.04	-0.40	-3.95	-0.27	-2.75	-0.21	-2.81
자기 정책입장	0.15	3.29	0.27	5.49	0.12	2.38	0.23	3.82
후보자 선호 × 자기 정책입장	0.06	2.81	0.10	4.53	0.06	2.97	0.06	2.14
새누리당 지지	0.21	1.12	0.25	1.29	-0.10	-0.51	0.12	0.62
민주당 지지	0.02	0.11	0.34	1.75	0.22	1.18	0.10	0.52
진보정당 지지	-0.47	-1.36	0.06	0.17	-0.18	-0.52	-0.50	-1.50
이념 성향	0.08	2.01	0.04	0.95	0.02	0.40	0.02	0.43
정치 지식	-0.14	-1.27	0.16	1.45	-0.26	-2.48	-0.25	-2.33
나이	-0.12	-1.81	-0.11	-1.69	-0.11	-1.68	-0.04	-0.64
교육	0.03	0.62	0.04	0.68	0.01	0.26	0.00	-0.09
수입	0.00	-0.01	-0.04	-0.40	0.04	0.45	-0.08	-0.81
기타 통제변수								
N	750		731		760		766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two-tailed p-value < 0.05)는 굵은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수로는 출신 지역, 성별 등이 포함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싫어하는 후보자는 자신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 외에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 나이, 그리고 정치적 지식수준, 그리고 〈표 3〉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출신 지역 등 기타 통제 변수들의 영향도 몇몇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⁴⁾

〈표 4〉는 식 (1)을 후보자나 정책 사안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합하여 순위 로지스틱(ordered logit estimation), 고정 효과(fixed effect estimation), 그리고 변동 효과 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식 (1)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책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또한, 모든 데이터(pooled data)를 합칠 경우, 이 데이터는 군집 데이터(clustered data)가

4) 출신지역은 9개의 범주를 포함하며, 단순화를 위해 결과 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3〉 계속

3) 안철수

	일자리		환경		세금		북한	
	계수	t	계수	t	계수	t	계수	t
후보자 선호	-0.22	-3.59	-0.10	-1.23	-0.22	-2.69	-0.14	-2.27
자기 정책입장	0.32	7.32	0.49	10.13	0.28	5.47	0.65	10.30
후보자 선호 × 자기 정책입장	0.04	2.49	0.03	1.73	0.06	3.14	0.02	0.90
새누리당 지지	-0.19	-1.04	-0.02	-0.10	-0.05	-0.29	0.20	1.16
민주당 지지	-0.26	-1.51	-0.19	-1.07	0.02	0.10	0.07	0.38
진보정당 지지	-0.33	-1.05	-0.18	-0.57	-0.39	-1.15	-0.26	-0.81
이념 성향	0.10	2.67	0.02	0.54	0.04	1.10	-0.04	-0.97
정치 지식	-0.15	-1.50	0.04	0.44	-0.18	-1.72	-0.18	-1.77
나이	-0.17	-2.78	-0.11	-1.78	-0.03	-0.43	-0.03	-0.51
교육	-0.11	-2.19	-0.09	-1.79	0.03	0.60	-0.06	-1.13
수입	-0.03	-0.36	0.07	0.77	0.04	0.48	-0.04	-0.42
기타 통제변수								
N	814		788		783		817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two-tailed p-value < 0.05)는 굵은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수로는 출신 지역, 성별 등이 포함되었다.

되므로 고정 효과와 변동 효과 모형으로 예측될 수 있다.⁵⁾ 이 분석에서 안철수 씨의 소속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안철수 씨가 무소속이므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본 평균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⁶⁾

〈표 4〉의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후보자 및 정책 사안별 분석 결과가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서로 다른 통계적 분석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정 효과 분석 결과는 분석 결과의 정당성(validity)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정 효과 분석(fixed effect estimation procedure)은 가장 대표적인 군집 데

5) 군집 데이터(clustered data)는 동일한 분석 단위의 행동이나 반응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측된 데이터를 말한다. 패널 데이터는 이러한 군집 데이터의 일종이다. 고정 효과와 변동 효과 분석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군집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의 분석 모형이다(Wooldridg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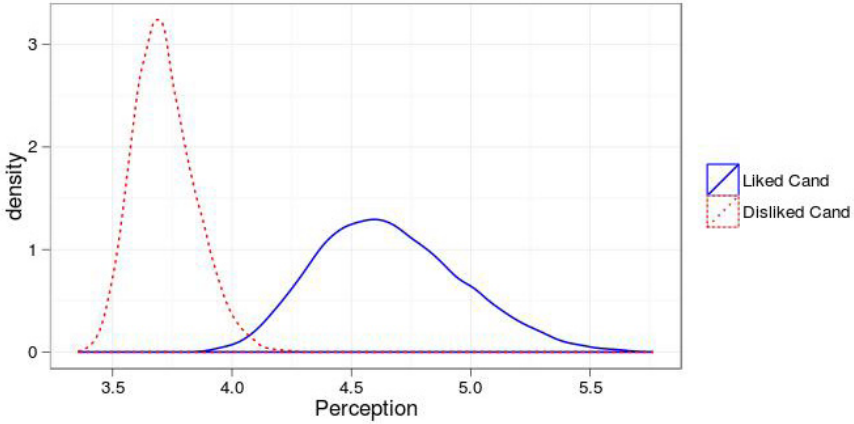
6) 박근혜와 문재인 씨 관련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식 (1)을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순위 로지스틱, 고정효과(fixed effect), 변동효과(random effect) 분석 결과: 모든 후보자와 모든 정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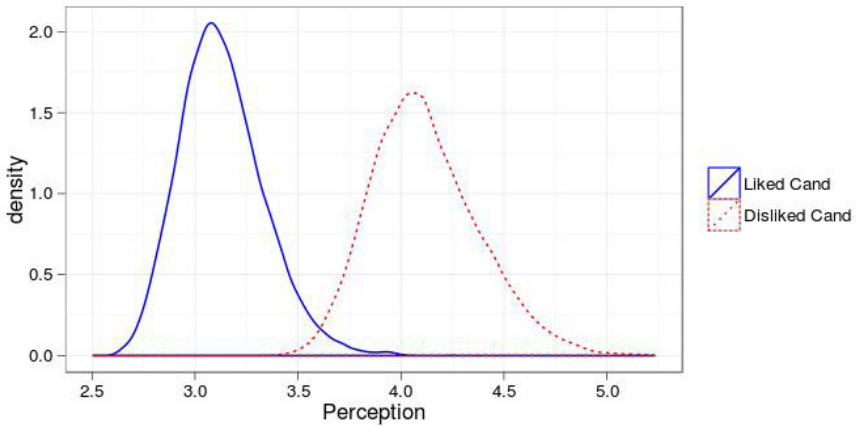
	순위 로지스틱		고정 효과		변동 효과	
	계수	t	계수	t	계수	t
정당 정책입장	1.07	53.85	0.55	53.39	0.57	58.03
후보자 선호	-0.31	-16.38	-0.21	-18.82	-0.18	-17.64
자기 정책입장	0.27	22.12	0.16	21.55	0.16	23.31
후보자 선호 × 자기 정책입장	0.07	14.47	0.04	15.28	0.04	15.00
새누리당 지지	0.02	0.40			0.02	0.49
민주당 지지	0.02	0.39			0.03	0.72
진보정당 지지	-0.09	-0.92			-0.03	-0.43
이념 성향	0.02	1.43			0.00	0.51
정치 지식	-0.07	-2.49			-0.05	-2.17
나이	-0.08	-4.29			-0.05	-3.37
교육	-0.02	-1.30			-0.01	-1.22
수입	-0.01	-0.54			0.00	-0.21
기타 통제변수						
N	9621		9621		9621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two-tailed p-value < 0.05)는 굵은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수로는 출신 지역, 성별 등이 포함되었다.

이터와 패널 데이터(panel data)의 분석 방식으로써 한 응답자 내에서의 종속 변수의 변화(within-subject variance)를 예측 변수들로 설명한다. 즉, 식 (1)의 경우 고정 효과 분석은 서로 다른 응답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응답자 내에서 후보자와 정책 사안에 다른 인식의 변화를 독립 변수들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측이 되었든 아니든 응답자들의 모든 개인적 특성들은 자동적으로 통제된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 조사에서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혹은 편견이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설명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박근혜에 대한 선호와 박근혜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태도 역시 안철수가 정치신인이기 때문에 비슷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응답자들의 특성들도 고정 효과 분석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통제된다. 〈표 3〉의 고정 효과 분석 결과는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개인적 변인들이



(a) 응답자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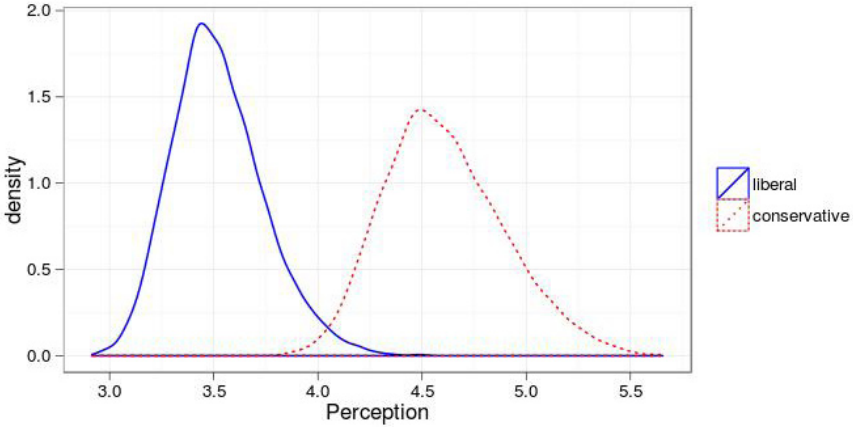


(b) 응답자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림 1〉 투영 효과

모두 통제된 후에도 투영 효과, 추론 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가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회귀 분석에서 식 (1)과 같이 교차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 교차항과 관련된 분석 결과의 해석은 계수 값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교차항이 포함될 경우 교차 변수들(interaction variables)의 주효과(main effects)와 교차 효과(interaction effects)의 방향과 크기는 물론 그 통계적 유의미성



〈그림 2〉 허구적 일치성 효과

도 다른 독립 변수들의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측 결과(estimation results)를 이용하여 관련 변수들(covariates)이 적절한 값을 가진 조건에서 핵심적인 독립 변수의 영향을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King et al. 2000).⁷⁾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이러한 방식에 따라 투영 효과와 허구적 일치성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은 〈표 4〉의 순위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자신의 정책 입장과 후보자 선호 등 주요 변수 이외의 모든 설명 변수들은 표본 평균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a)〉는 평균적인 설문 응답자가 정책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응답자 정책 입장_i = 6)을 갖고 있을 때, 좋아하는 후보자와 싫어하는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보여준다. 유사하게, 〈그림 1-(b)〉는 응답자가 진보적인 입장(자신의 정책 입장_i = 2)을 가지고 있을 때, 좋아하는 후보자와 싫어하는 후보자의 입장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비교한다. 그림에서 가로 축은 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내며 1 - 7(진보 - 보수) 사이의 값을 갖는다. 세로축은 확률 밀도(density)를 나타내며, 그래프들은 응답자의 시뮬레이션된 인식 분포(simulated distributions of perception)이다.

응답자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경우(〈그림 1-(a)〉), 좋아하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는 싫어하는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분포에 비해 우측에 위치하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마이 외(Imai et al. 2007)를 참조하라.

고 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싫어하는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인식 분포들이 거의 겹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그림 1-(b)〉), 이와 반대로 좋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분포가 싫어하는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분포에 비해 좌측에 위치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인식분포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는 싫어하는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림 2〉는 응답자가 정책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응답자 입장_i = 6)을 갖고 있을 경우와 진보적인 입장(응답자 입장_i = 2)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여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호는 다른 독립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응답자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시뮬레이션된 인식 분포는 응답자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인식 분포보다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의 입장이 보수적일 때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도 좀 더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후보자들이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V. 결론

정책 선거의 기본 전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파편적이고, 불완전하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인식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투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 일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자들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인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대표적인 설명들을 최근 실시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유권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는 자신과 비슷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반면, 싫어하는 후보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보자나 정책 이슈와 관

계없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입장이 자신들의 정책 입장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상관없이, 후보자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판단할 때, 이들의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의존한다. 넷째, 이러한 경향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따라서 동시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Miller et al. 1976; Conover and Feldman 1989; Kenny 1993).

위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정책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는 점이다. 설문 자료의 분석 결과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 자신의 정책 입장, 그리고 정당의 정책 성향에 대한 지식 혹은 고정 관념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후보자들의 실제 정책 입장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경향적으로(systematically)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왜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 다르며, 또 이러한 차이가 선거 과정에서 좁혀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요인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선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 특히 지지자들과 비지지자들의 인식이 —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주관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강화되는 만큼 이러한 인식의 차이도 좁혀지다 더 심해질 수 있다. 객관적인 세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하며, 인간은 항상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후보자의 정책 입장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간극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물론,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캠페인 정보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실제로 접한 캠페인 정보를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투영 효과나 허구적 일치성 효과 그리고 추론 효과가 무의미해 질 가

능성은 별로 없다(김성연 2011; Conover and Feldman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다 엄정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패널 데이터나 실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유권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선호에 입각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선호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가 한국에서의 정책 투표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작동 일반에 대한 연구에서 갖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투고일 2012년 8월 30일

심사일 2012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7.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네가티브캠페인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3집 2호, 131-146.
- 김성연. 2011.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캠페인 정보, 투영효과, 허구적 일치성 효과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7권, 118-143.
-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37-166.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 투표.” 『평화연구』 17권 2호, 42-72.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11-136.
- 황아란. 2008. “경제 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93-212.
- Adams, J. F., S. Merrill, and B. Grofman. 2005. *A unified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grating spatial and behavioral factors*. New York: Cambridge Uni-

- versity Press.
- Aldrich, John H. and Richard D. McKelvey. 1977. "A Method of Scaling with Application to the 1968 and 1972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111-130.
- Alvarez, R. Michael. 1998. *Information and Elec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nderson, John R., D. Bothell, M. Byrne, S. Douglass, C. Lebiere, and Y. Qin. 2004. "An Integrated Theory of Mind." *Psychological Review* 111. No.4, 1036-60.
- Ansolabehere, S., J. Rodden, and J. M. Snyder Jr. 2008. "The strength of issues: Using multiple measures to gauge preference stability, ideological constraint, and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 No.2, 215-232.
- Brady, Henry E., Richard Johnston, and John Sides. 2006. "The Study of Political Campaigns." In Brady, Johnston, and Sides, eds. *Capturing Campaign Effec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Conover, P. J. and S. Feldman. 1989. "Candidate perception in an ambiguous world: Campaigns, cues, and inference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912-940.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eldman, S. and P. J. Conover. 1983. "Candidates, issues and voters: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The Journal of Politics* 45, 811-83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Granberg, D. 1985. "An anomaly in political percep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9, 504-516.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ghton, B. 2010. "The Contextual Causes of Issue and Party Voting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Behavior* 32, 453-471.
- Holbrook T. 1999. "Political Learning from Presidential Debates." *Political Behavior* 21. No.1, 69-89.
- Kinder, D. R. 1978. "Political person perception: The asymmetrical influence of sentiment and choice on percep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59-871.
- Kosuke, Imai, Gary King, and Olivia Lau. 2007. "Zelig: Everyone's Statistical Software" <http://gking.harvard.edu/zelig>(검색일: 2012.08.10).
- Krosnick, J. A. 1988.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litical candidate perception: A review of

- research on the projection hypothesis.”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USA. April.
- Lau, Richard R. and David P. Redlawsk. 2006. *How Voters Decide: Information Processing during Election Campaig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 S., H. Norpoth, W. Jacoby, and H.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rkus, G. B. 1982. “Political attitudes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No.4, 538-560.
- Miller, W. E. and J. M.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 1968. “Interpersonal balance.” In R. 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 Page, B. I. 1978. *Choices and Echoes in Presidential Elections: Rational Man and Electoral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ge, B. I. and R. A. Brody. 1972. “Policy voting and the electoral process: The Vietnam War issu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No.2, 389-400.
- Patterson, T.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ew York: Praeger.
- Shepsle, Kenneth A. 1972. “The Strategy of Ambiguity: Uncertainty and Electoral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No.3, 555-568.
- Sherman, S. J., C. C. Presson, and L. Chassin. 1984. “Mechanisms underlying the false consensus effect: The special role of threats to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27-138.
- Snyder, J., and M. Ting. 2002. “An informational rationale for political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No.1, 90-110.
- Woon, J., and Pope, J. 2008. “Made in congress? Testing the electoral implications of party ideological brand names.” *Journal of Politics* 70, 823-836.

첨부 1. 4가지 정책 사안에 관한 질문과 척도

1. 일자리 정책

최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은 마땅히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대립적인 견해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1과 7 사이의 숫자로 표시할 경우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와 주요 정당이 어떤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숫자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삶의 질 보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책에 대한 입장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각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모름
	1 ----- 7								
1 ○○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9	
2 박근혜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3 안철수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4 문재인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5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6 민주통합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2. 환경과 경제 개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경제성장을 늦추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환경보호보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견해 가운데 먼저 ○○님의 의견은 다음의 1과 7 사이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와 주요 정당의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숫자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에 대해	정책에 대한 입장							
	일자리 줄고 경제성장 늦더라도 환경이 중요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환경보다 중요			모름
	1 ----- 7							
1. ○○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9
2. 박근혜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3. 안철수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4. 문재인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5.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6. 민주통합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3. 북한정책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써야하며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대북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써야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충돌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견해 가운데 먼저 ○○님의 의견은 다음의 1과 7 사이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와 주요 정당의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숫자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정책에 대한 입장							
	유화적 대북정책 (일방적 대북지원)			현재 정책 유지	강경한 대북정책 (무력충돌 불사)			모름
	1 ----- 7							
1. ○○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9
2. 박근혜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3. 안철수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4. 문재인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5.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6. 민주통합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4. 세금 정책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부유층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견해 가운데 먼저 ○○님의 의견은 다음의 1과 7 사이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와 주요 정당의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숫자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정책에 대해	정책에 대한 입장							
	부유층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상태 유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모름
	1 ----- 7							
1. ○○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9
2. 박근혜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3. 안철수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4. 문재인씨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5.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6. 민주통합당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9

첨부 2. 후보자 선호에 관한 질문과 척도

○○님께서 올 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정치인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점수의 예를 참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말씀해(적어) 주세요. 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음'에 표시 (√)해 주세요.

- 100점 - 대단히 호의적인 느낌
- 85점 - 상당히 호의적인 느낌
- 70점 - 어느 정도 호의적인 느낌
- 60점 - 약간 호의적인 느낌
- 50점 -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 40점 - 약간 부정적인 느낌
- 30점 - 어느 정도 부정적인 느낌
- 15점 -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
- 0점 - 대단히 부정적인 느낌

- | 후보자 | 점수 | 잘 모르겠음 |
|--------|------|--------|
| 1. 박근혜 | ()점 | _____ |
| 2. 문재인 | ()점 | _____ |
| 3. 안철수 | ()점 | _____ |

ABSTRACT

How Do Korean Voters Judge Candidates' Issue Stances?: Evidence From a Recent Survey

Sung-youn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g Kook Kim | Chung-Ang University

Sang Sin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Voters perceptions about candidates issue stances form a necessary baiss for issue voting and thus the working of democratic politics. However, little systematic effort has been devoted to investigate how Korean voters judge where candidates stand on policy issues.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voters form judgments of candidates issue stances using recent survey data. Specifically, it is examined here whether major extant explanations of perception — namely, projection, false consensus, and inference-making — can also account for Korean voters perceptions.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Korean voters perceptions are strongly and independently influenced by voters preferences about candidates, their own issue positions, and their beliefs or stereotypes about the issue positions of candidate parties. The major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on issue voting and democratic politics in Korea are discussed as well.

Keywords: Presidential Election, Issue Voting, Candidates' Issue Stances, Voter Perception